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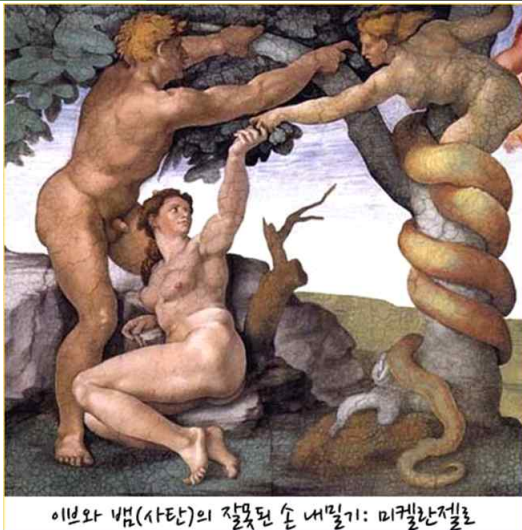
아테네의 흑도화(Attic Black-Figure) 알포라(550BC)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살해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 뒤에서 음원을 보내고, 파시파에가 미노타우로스 뒤에서 함의를 표시하는 듯하다. 이 두 여인은 모노로서 목정에 눈이 멀었던 크레타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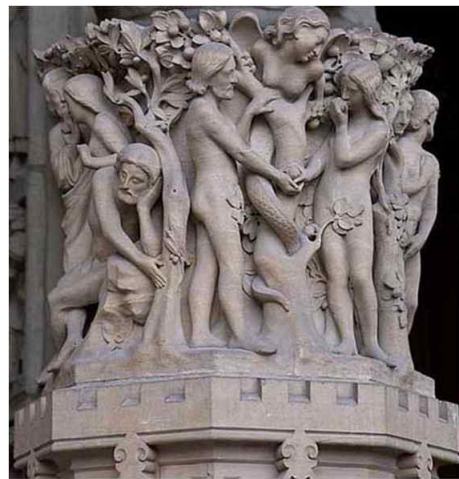
살리논(gives life) 일을 하는 영웅은 희망(민중의 끈을 놓지 않는 자이다).

고대 그리스로마와 근동세계의 여성관

- 여성은 주인(아버지, 남편)의 소유물, 유일한 자기보호수단은 지참금과 이혼증서(신 24:1, 3; 막 10:4).
- 여성이 '지혜롭다'는 이미지: 아테나(헤라클레스와 오디세우스를 도운 지혜와 용맹과 전쟁의 여신), 아리아드네(크레타의 미노스 왕과 파시파에의 딸, 테세우스에게 칼과 붉은 실타래를 건넨), 기생 라합(수 2장).
- 잠언서도 지혜를 '여성'(Lady Wisdom)으로 의인화 하였다(잠언 7:4).
- 여성은 '간교하다'와 '유혹하다'는 이미지: 파시파에(미노스 왕의 부인, 황소와의 사이에서 미노타우로스를 낳음), 사이렌(스타벅스의 로고는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사이렌이거나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룻과 다곤의 합성).
- 창세기는 하와를 유혹한 뱀을 의인화 하였다(창 3:1).
- 유대인들에게 선악과나무(무화과=여성)는 지식(율법)의 상징.
- 선악(옳고 그름)을 알게하는 지식에 하와와 뱀이 개입되었다.
- 뱀은 여성으로 의인화되며 지혜(마 10:16)와 치유를 상징하였다.



이브와 뱀(사탄)의 잘못된 손 내밀기: 미켈란젤로



무화과 나무=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노르트담 대성당 입구 기둥조각)

선악성경의 가르침

- 막 10:6,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고 평등하며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갈 3:28-29,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 아브라함의 '그 희망'과 '그 약속'=나라와 땅, 아브라함의 후손 상속자(유대인=지상 가나안 땅, 그리스도인=하늘 가나안 땅).



그레데의 파이스토스의 주화(c. 360-50 BC)

전면에 에우르페(유럽)가 바위에 앉아서 오른손을 흰 황소의 머리를 향해 내밀고 있는 황소성애자의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 헤르메스가 오른손에 케두케우스를 들고 바위에 앉아 상항을 숙시하는 모습을 새겼다. 흰 황소는 난봉꾼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다. 그레데의 전설적인 왕 미노스는 멋진 흰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가 에우르페를 그레데로 납치 해서 낳은 아들이다. 결국 미노스는 수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레데인들은 황소의 자손인 셈이다. 이처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미노스 문명(3650-1170 BC)의 중심에는 황소숭배(성애)가 있다.



크노소 궁전 북동쪽 입구에 소재한 보좌방 보좌 좌우를 그리핀(Griffins)들이 지키고 있다. 보통 그리핀들은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통을 하고 있다. 프레스코화나 석조물에 그리핀들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쇠망한 미노스문명을 접수한 미케네 문명시기(c. 1450 BC)로 알려져 있다. 그리핀들은 사람의 얼굴에 황소 몸통을 한 수호신 라마수(Lamassu), 사슴의 얼굴에 사자 몸통을 한 수호신 스팅크스, 야훼성전의 지성소 보좌(법좌)를 수호하는 케루빔에 비교된다.



그레데의 파이스토스의 주화(c. 300-270 BC)

전면에 날개를 펼친 청동 인물 탈로스(Thallos)가 양손에 돌을 들고 섬을 지키는 모습을 새겼고, 양다리 사이에 탈로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황소를 새겼으며, 위에 '파이스토스의'라고 새겼다. 탈로스는 청동으로 만든 오토마톤(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기계)으로서 제우스가 부인 헤라 몰래 그레데로 납치한 에우르페(유럽의 어원, 페니키아인 여성)의 경호를 맡은 '인공지능 경호로봇'이다. 그레데 섬의 해안을 하루 세 차례 돌아다니며 순찰하며 해적이나 침입자로부터 에우르페를 보호했다고 한다.



그레데의 파이스토스의 주화(c. 300-250 BC)

전면에 날개를 펼친 청동 인물 탈로스(Thallos)가 양손에 돌을 들고 섬을 지키는 모습을 새겼다. 뒷면에 사냥개와 ΦΑΙΣΤΙΟΝ(파이스토스의)이란 글자를 새겼다. 탈로스는 청동으로 만든 오토마톤(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기계)으로서 제우스가 부인 헤라 몰래 그레데로 납치한 에우르페(유럽의 어원이 된 신화 속 페니키아인 여성)의 경호를 맡은 '인공지능 경호로봇'이다. 그레데 섬의 해안을 하루 세 차례 돌아다니며 순찰하며 해적이나 침입자로부터 에우르페를 보호했다고 전한다.



아티카(ATTICA)의 아테네(Athens, c. AD 145-175)의 트라크마 전면에 투구를 쓴 지혜와 통치의 여신 아테나를 새겼고, 뒷면에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잠인 다이달로스가 고안한 미궁에 들어가 미노타우르스를 죽이는 장면을 새겼으며, 좌측에 Athen이라고 썼다. 그레데의 왕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오스가 아테네에서 열린 경기에 참가했다가 죽임을 당한 대가로 아테네는 9년에 한 번씩 청년 7명, 처녀 7명을 미궁으로 보내 미노타우르스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레데 왕자가 황소미물로 태어나 아테네 왕자에게 목이 잘린 것은 미노스문명(3650-1170BC, 2700-1500BC 변성)이 그리스의 미케네문명(1400-1200BC 변성)에 목이 잘린 것의 상징일 수 있다.



그레데의 크노소스의 헤미드라크마(두 데나리온) 은화(420-380 BC) 전면에 인간의 몸을 하고 얼굴과 꼬리는 황소 모습을 한 미노타우르스(Minotaur)가 무엇인가(물?)를 손에 쥐고 뛰는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 미노타우르스가 갇힌 잠인 다이달로스가 고안한 미궁을 새겼다.